

광주 고층 아파트 '우후죽순'...경관 헤치고 도시 정체성 위협

국도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건축물 현황'을 보면 광주는 '아파트 도시', 전남은 '오래된 주거지'로 정의할 수 있다. 광주는 고층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경관 및 미관을 헤치고 도시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전남의 농촌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의 '주거의 질'이 추락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지역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절반=전남도내 전체 건축물은 모두 62만 4155동으로, 이 가운데 26만 4902동(42.2%)가 35년 이상된 건축물이다. 30~35년 미만 건축물은 3만 4329동(5.5%)으로, 30

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47.9%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용으로만 한층해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남지역 주거용 건축물은 42만 2872동이다. 35년 이상된 건축물은 23만 2198동으로 54.9%, 30~35년 미만은 2만 4782동으로 5.9%의 비중을 보였다.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당장 정비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이 60.8%에 이르는 것이다.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노후 건축물 비율은 충남(35.5%), 전북(42.4%), 경북(44.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광주의 노후건축물은 4만 6376동으로,

국토부 2015년 건축물 현황

노후주택 비율 진도 60.5% '전국 최고'

주민 주거의 질 추락...장기 대책 시급

전체(14만 1711동)의 32.7%였으며, 주거용 노후건축물은 3만 9012동으로, 전체 주거용 건축물(9만 8985동)의 39.4%의 비중을 보였다.

◇아파트만 들어서 도시 매력 급감하는 광주=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72.4%로, 세종시(74.3%)에 이어 대도시 8곳 가운데 7번째로 주거면적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세종시가 신도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의 아파트 비율이 단연 최고지다. 대전은 66.0%, 인천 67.8%, 대구 64.2% 등으로 광주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광주는 특히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비율도 8.4%를 보였으며, 단독주택은 세종시(17.3%) 낮은 16.7%에 불과했다. 광주가 건설업체의 '수익창출의 장'이 되면서 고층아파트만 즐비한 '매력 없는 도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얻고 있

는 이유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각각 남구 봉선2차 남양휴먼 아파트로 32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KEPCO 본사 신사옥으로 31층이었다.

◇노후건축물 비율 광주 동구 22.2% 진도 39.5%=광주의 노후건축물은 구도심에, 전남은 농촌지역에 몰려 있었다. 이들 노후건축물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민간 건설업체들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에서는 동구(22.2%)에 이어 남구(15.1%)가 가장 비율이 높았고, 북구(11.4%), 서구(8.8%), 광산구(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용 노후건축물 비중은 동구 22.9%, 남구 15.4%, 서구 11.3%, 북구 10.9%, 광산구 5.6%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진도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안(38.4%), 강진(34.8%), 완도(34.0%), 장흥(30.0%) 등 주로 군 단위에 노후건축물이 많았고, 시 단위에서는 나주(20.8%)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주거용으로 한정하면 진도가 60.5%로 전국 최고치였다. 신안이 59.5%로 역시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후 주거용 건축물이 많았고, 장흥(54.4%), 강진(54.3%), 보성(52.9%), 완도(51.1%) 등도 주거용 건축물 절반이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구 획정은 언제' 1면서 계속

새누리당은 일단 애초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지역구 경선을 하려던 일정을 23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공모 마감 후 17일경부터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착수하러던 계획 등도 연기해야 한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YTN라디오에 출연, "선관위가 새로 (유권)해석을 해서 선거구 조정이 안 되면 경선도 못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4일 1차 경선지역을 발표하고 다음달 18일에는 전 지역구 경선을 종료하기로 계획했던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심번호 활용 시기는 우리당이 정한 경선 일정과 맞지 않다"면서 "선관위와 더 논의해서 우리의 경선이 가능한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는 더 혼란스럽다. 특히 선거구 획정 대상 지역구의 예비후보는 경선 일정까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자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지 모르겠다"며 연일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치르려면 23일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19일, 이번 추가 아주 고비"라며 "이번 주내에 (선거구 획정) 결정이 나지 않으면 (4·13)총선을 (제때에)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선거 선거상황실 개소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상황실' 개소식에서 이인복 선관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상황실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버스보조금 손 본다...운영 실태 조사

1800여 노선 매년 250억 지급

전남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농어촌·시내 버스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전남도가 정밀조사에 나선다. 1860여개 노선에 대한 적자손실액으로 매년 25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도와 각 시·군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및 회계를 검증·분석한 뒤 보조금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5일 "지나해 2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한 버스 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이 가동되면서 전자신고된 자료와 실제를 검증해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초급에 1억원으로 전남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 대상은 전남도내

시외(49%)·시내(264)·농어촌버스(1107) 등 1867개 노선을 운영중인 시외버스 6개사, 시내·농어촌버스 46개사이다. 이들 업체들의 2015~2016년도 경영자료, 2015년 하반기 전자신고·실체 자료, 2015년 결산 자료, 2015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수입금 현실사 등을 거쳐 버스 운송사별 표준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운영·인가 노선별 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다.

전남도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22개 시·군에서 운행중인 시내·시외·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는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곡성군의 경우 거리에 따라 최대 3000

관급 공사 '불필요 자재·공법' 예산 낭비

전남도 감사 적발

일부 업체들이 전남도나 각 시·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를 수주해 불필요한 자재와 공법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공개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기준 등을 어긴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법을 채택한 8건을 적발해 5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공무원과 감리원(감리회사) 등 7명을 훈계, 벌점부과,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

보성군은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비탈면에 필요하지 않은 차단펜스 186m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드는 방수공법을 채택하는 등 3600여만원을 과다 반영했다.

전남도 해양항만과 역시 부두 축조공사 중 소용과 날아다니는 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예산을 과다 반영하고 선박의 접안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설치하는 방충재 26개를 선박이 접안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5900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장흥군으로부터 상수도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관로 터파기 때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294m 설치해야 하는데도 100m만 설치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2.5km 떨어진 장소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0.9km 떨어진 곳에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예산 1억 2000여만원이 낭비됐다. 장성군, 영광군, 광양시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전국 1위'

교부세 17억 4800만원 확보

전남도가 행정자치부의 '2015 지자체 청사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실적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17억 48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의 2015년 청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3378t(이산화탄소 환산)이다. 이는 행정자치부연도인 2007~2009년 평균 사용량(4503t)에 비해 24.95%(1125t)를 절감한 것으로, 서울시(21.85%)와 함께 전국에서 2곳만이 행정부 목표 절감률(20%)을 달성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컴퓨터 대기전력을 차단

당신의 광장/즐거움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수비드 떡갈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떡갈비, 떡갈비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문자비법! 물건위주 강의!

2016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 18(월) ~ 2016. 2. 25(목)
- 수업기간 : 2016. 3. 3 ~ 2016. 6. 9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230-7700 ~ 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6년 부동산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특강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시	2016. 2. 17(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1) 2016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쪽집게 투자 전략 대응법 공개 (2) 부동산 지역별/물건별 맞춤 투자 전략

2교시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공개 및 정확한 수익성 분석 (2) 부동산 가격 상승 핵심지역 분석-임대수익과 시세 차이 동시 공략 비법

3교시 (1) 개발지 토지 투자(소액포함)로 영원히 월세받는 비법 대 공개-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자부동산 부총리 겸 대표 (현) 영자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김영표 기자

NAVER 영자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